

전 남

장흥경찰 '유연근무제' 실효성 논란

개인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 조절... 경찰·주민 '회의적' 고령자 주간·비경력자 야간 편성... 피로누적 부작용 속출

경찰청이 치안수요가 많은 야간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운영하는 '치안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장흥경찰서 등 전국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장흥경찰서의 '치안맞춤형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경찰관들과 주민들의 회의적이라는 게 공통적인 반

응이다.

이 제도는 1인 경찰관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일 3교대 체제로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24시간 전전후 근무로 인한 주민들의 치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된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시행 이전까지 장흥경찰

서 관내 1일 평균 10건에 달하던 각종 사건사고 건수가 5~6건으로 줄어들어 치안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3급서(농촌형)에 해당하는 장흥경찰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된 조직구조에서 생체리듬, 적성을 고려하는 3교대 주·야간 근무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고령자를 대부분 주간조, 비경력자는 야간조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간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무수당 감액으로 처우개선에 있어 불이익이 어지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 응시율이 높아지면 서 연고제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어 광주 등 원거리 거주 경찰관들은 근무여건상 매일 출·퇴근을 해야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시범기간에 현지 확인실태를 통해 농촌형 3급서 관할에서의 유연근무제가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안맞춤형 유연근무제'는 현재 세계 각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순천시 전국 첫 등계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성료

지난 19일 순천 계곡산 일원 20km 구간에서 열린 '2010 전남도 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XC부문, 초·중급 일반, 여성, 학생, 시니어, 베테랑 등 총 9등급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남도 제공>

진도대파 브랜드화 적극 추진

66억 들여 산지유통센터 건립... 2012년 완공

전국 대파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진도에 산지 유통센터가 건립된다.

진도군과 (주)진도청정푸드벨리는 지난 17일 임회면 고산리에서 김영록 국회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등 관내 기관 단체장과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대파 산지유통센터 기공식을 가졌다.<사진>

오는 2012년 완공되는 산지유통센터는 사업비 66억원을 들여 부지 2만 1000여㎡에 전체면적 6154㎡, 지하 1

층·지상 2층 규모로 작업장, 저온 저장창고, 집화·포장·선별 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한 센터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첨단시설을 갖춰 생산, 제조, 유통의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3월 대파 통합 브랜드로 '이슬향'을 개발했으며 롯데마트 등에 납품 공급계약을 하는 등 대파 소비촉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농민수산물품부의 '진도대파 원



진도대파 산지유통센터 기공식

에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165억원이 투입된다.

진도군과 (주)진도청정푸드벨리는 연중 대파출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과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원에 브랜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고품질 대파 생산기반 구축으로 산지의 수급조절 능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대파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농어촌공 전남본부, 이웃에 사랑의 쌀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 '사랑의 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7일 '요한빌리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쌀 20kg 160포를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목포교육청, 다문화 가정과 함께 전통문화체험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신)은 지난 17일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아동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영암 왕인박사의 유적지와 월출산 도갑사를 찾아 지역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남도교육감 부인 차욱주씨와 함께 '김치만들기'를 체험하고 이를 독거·장애인 가정 등에 전달했다.

다문화 가족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

고 말했다.

윤주신 교육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순천정원박람회 포스터 확정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포스터가 확정됐다. 순천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43일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포스터 공모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심사결과 일반부 우수상은 경희대 이지원씨, 중·고등부 우수상은 서울 도봉중 전창현, 초등부 최우수상은 서울 신영초등 이은서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일반부의 우수상을 받은 이지원씨의 포스터 작품<사진>은 한국적인 패턴을 이용해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형상화시켰으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펼쳐질 다양한 형태의 생태정원을 한국의 전통미를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나주 세지 보건복지센터 준공

나주 세지면 오봉리에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섰다.

나주시는 최근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향우회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지 보건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세지 보건복지센터는 17억여원을 들여 1436㎡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일반진료실, 치과진료실, 통합보건의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로 취미교실, 목욕장 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는 음향시설을 갖춘 회의실을 확보해 명실상부 보건과 복지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도록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고향 후배위한 아낌없는 사랑

구례 재경 여성향우 후배들에게 장학금

구례출신 재경 여성 향우회원이 고향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각별한 고향사랑과 후배 사랑을 보여줬다.

20일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만웅)에 따르면 재경 구례군향우회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인애장학회(회장 이화진)는 최근 지역 초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바자회와 음식판매 등을 통해 실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모범학생에게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이화진 회장은 "작은 금액이지



만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향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 구례군향우회는 매년 지역 초등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다양한 문화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2011 새로운 목포를 창조하는 행정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목포건설
세계최초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시